

노년기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통한 사회관계 만족도의 매개된 조절효과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
through Social Trus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Older Adults

배 수 현*

김 기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Suhyun Bae

Giye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노년기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통한 사회관계 만족도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제13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60세 이상 3,436명의 데이터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노년기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는 사회관계 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감이 높은 노인은 사회적 신뢰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우울감과 사회적 신뢰의 관계는 사회관계 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사회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노인일수록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의 경우 사회적 신뢰가 증가하여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관계 만족도의 효과는 사회관계 만족도와 함께 증가한 사회적 신뢰의 효과인 것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통한 사회관계 만족도의 부분 매개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

* 주저자: (우)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과정 배수현
(e-mail: lovebir_d@naver.com)

** 교신저자: (우)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김기연 교수
(e-mail: gkim@cau.ac.kr)

계에서 사회참여의 차별적 결과의 요인이 사회적 신뢰를 통한 효과임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인 자살예방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노인, 노인 자살, 노인우울증, 사회적 신뢰, 사회적 관계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depressive symptoms on suicidal ideation and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 through social trust among Korean older adults. Drawn for the 13th wave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our sample consists of a total of 3,436 older adults aged 60 and over. Results from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older adults who reported higher levels of depressive symptoms were more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and social relation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Second, older adults who reported higher levels of depressive symptoms were more likely to have poor social trust.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 was mediated by social tru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national- and community-level suicide prevention infrastructure for older adults by extending social capitals.

Key words : Older adults, Elderly suicide, Geriatric depression, Social trust, Social relations

I. 서 론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인의 자살률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자살률 증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향후 노인의 삶과 복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유지와 안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노인자살은 경제적 요인, 인구구조 및 사회문화적 요인 등 거시적인 사회 환경 내에서 개인적 특성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자살의 원인을 특정한 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Brooks, Burruss, & Mukherjee, 2019; H. Kim, 2017). 이에 노인자살 연구는 수정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 및 관련성

을 검증하여 예방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Eom, 2007).

예방이 가능한 위험요인 중에서 자살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변인으로는 우울감을 꼽을 수 있는데(S. Lee & Atteraya, 2019; S. Lee & Lee, 2019), 노인자살 연구에서도 우울감이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드러난다(Conwell, Duberstein, & Caine, 2002; Eom, 2007; Lebert, Perret-Vaille, Mulliez, Gerbaud, & Jalenques, 2006).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한국 노인의 건강문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우울증상이 심했던 경우가 가장 많았다(H. Kim, 2002). 우울감에 대한 대처는 자살보다 상대적으로 정책 및

실천적 개입이 용이하여 우울감에 대한 개입은 자살 예방을 이끌어낼 수 있다(M. Kim & Shin, 2013; Jeong & Yim, 2019).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노년기 심리·사회적 자원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임을 밝혔으며(D. Kim, Kim, & Shin, 2012; J. Lee & Han, 2012), 역시 공통적으로 사회참여가 우울감과 부적인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J. Kim, 2015; K. Kim & Sok, 2009; Park & Bae, 2016). 예를 들면,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및 심리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D. Kim et al., 2012), 사회적 관계의 대상이 많을수록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낮았으며(J. Lee & Han, 2012),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활동이 빈번할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았다(S. Kim, 2013). 또 사회참여가 활발한 여성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 비해 우울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Oh, Oh, & Kim, 2009). 이상의 연구결과들로부터 노인들의 경우 사회참여가 우울감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사회참여의 효과는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참여와 우울 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참여의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타인의 수, 사회참여의 빈도로 파악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사회적 연결망과 우울 간에 U자형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감소하지만, 과도한 크기의 사회적 연결망은 우울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M. Lee, 2013). 아울러 사회참여의 동기 및 목적

에 따라 사회참여자가 경험하는 효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Park, 2007). 따라서 사회참여의 빈도나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아닌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활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가 조절 또는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밝힌 연구들도 적지 않다(Bae, Kim, & Yoon, 2005; M. Kim & Shin, 2013; S. Lee & Lee,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밝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사회자본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따라서 사회참여의 긍정적 효과는 사회자본 이론에서 언급되는 신뢰 및 상호 호혜성 등 공동체주의 개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우울 및 자살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 및 신뢰, 협력 등의 사회자본 접근이 중요하다(J. Kim, 2015). 사회자본의 형성은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하다(Putnam & Unum, 2007). 사회자본 중 신뢰는 대인신뢰와 사회신뢰로 구분되며, 대인신뢰는 타인에 대한 신뢰로 동료 시민에 대해 갖는 집합적 태도를 의미한다(Newton, 2001). 이러한 대인신뢰는 사회참여를 통해 타인과 맺는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며, 이는 미시적 차원의 개별적 신뢰가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거시적 차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Park, 2007). 사별을 경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신뢰를 형성하였고, 변화한 삶에 대한 극복 및 적응 능력을 향상시

켰다(Shim & Cho, 2006). 또한 신뢰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 Lee, 2009; M. Lee, 2013). 이처럼 타인에 대한 믿음은 타인에 대한 경계를 감소시키고 정신적 안정감을 증가시키며 스트레스 정도를 낮춘다(M. Lee, 2013),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자본 이론을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이러한 조절효과는 사회적 신뢰의 매개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회귀분석 접근법에 따라 검증하고자 하며, 본 연구를 통해서 노인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실천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자살에 있어 사회자본의 역할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지역사회와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여 긍정적 사회자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우울감과 자살생각

노화과정을 경험하는 동안에 질병의 증가, 기능쇠퇴, 경제적 어려움, 고독감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사회적 요소로 인해 우울감에 대한 취약성은 증가한다(Harithasan, Mukari, Ishak, Shahar, & Yeong, 2020).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들은 슬픔, 부정적 자존감과 삶에 대

한 흥미상실 등을 경험한다(Steffens & Potter, 2008; M. Kim & Shin, 2013). Beck의 인지이론에 따르면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Beck, Kovacs, & Weissman, 1979). 이처럼 우울의 증가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 삶에 대한 흥미를 잃는 등 자살의 위험을 높인다. 이때, 자살은 자발적,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이며,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념이다(H. Kim, 2002; M. Kim, 2010; S. Kim, Jang, & Seo, 2011).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왔다(Choi & Kim, 2008; M. Kim & Shin, 2013; Yang & Lim, 2006). 우울증상은 자살위험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으며(S. Kim, Kim, Kim, Suh, Shin, Kim et al., 2008),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 또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 Kim & Shin, 2013). 노인의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건강상태 및 경제적 수준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나타났다(H. Lee & Jo, 2006), 우울감이 자살생각을 높이는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으로 드러나기도 했다(M. Kim, 2010). 이처럼 우울감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극단적인 자살행동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우울감은 자살생각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2.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감의 핵심 요소는 상실감인데, 이것은 사별 경험으로 인한 가족의 붕괴, 친지의 상실, 신체적 능력의 상실, 은퇴 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상실 등을 의미한다(Coren & Hewitt, 1999; Eom, 2007). 이러한 상실감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데, 사회지지체계에 소속되거나 타인과의 접촉 등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M. Kim, 2010). 사회적 관계의 유지는 상실과 같은 스트레스를 중화시켜 신체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한다(Thoits, 2011). 사회적 관계 유지가 탄력성을 증가시켜 외부 스트레스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대처능력까지 높인다는 뜻이다(Compton, Thompson, & Kaslow, 2005). 또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회참여활동은 역할의 상실을 경험한 노인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쇠약, 자존감 하락 및 감소된 삶의 만족도를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효과를 갖는다(Jang & Chiriboga, 2011). 그러나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정서적 만족에 대한 동기가 있더라도, 사회정서 선택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선택적으로 형성해간다(Carstensen & Isaacowitz, 1999). 다시 말하면, 노인은 고령으로 갈수록 사회적 관계에 대한 동기가 변하는데, 선택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대상을 선택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서적, 심리적 안녕을 영위한다는 것이다(Hendrics & Cutler, 2004).

사회적 관계가 노인들의 우울증 감소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한 연구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사회참여 활동 유지가 노인의 육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연구들(Shin, 2011; Yoon & Han, 2004)을 비롯하여 사회참여 활동이 자주 할수록 우울증 수준이 낮다는 연구(S. Kim, 2013),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라도 사회참여 활동이 우울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힌 연구(S. Kim et al., 2011) 등이 있다. 이처럼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는 우울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Bae, 2009; Gweon, 2009; Moon et al., 2008),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관계 만족도는 노인의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사회적 신뢰의 매개효과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은 개인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면 자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경제위기와 실업, 도시화, 이혼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붕괴되면, 개인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고 이것이 사회의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었다(Durkheim, 1897). 노인의 경우 은퇴로 인해 역할 상실을 경험하고, 사별과 자녀의 출가로 인해 가족관계의 축소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통합감(sense of social integration)이나 유대감 약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아노미적 자살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통합감이란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연대감, 소속감 또는

애착감 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M. Kim, 2005). 사회통합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 자원의 증가는 노인의 사회통합을 강하게 이끌어내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 및 사회통합은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Chang, Chan, & Yip, 2017; Eom, 2007). 즉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은 사회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통합감은 상호 의무감, 정체성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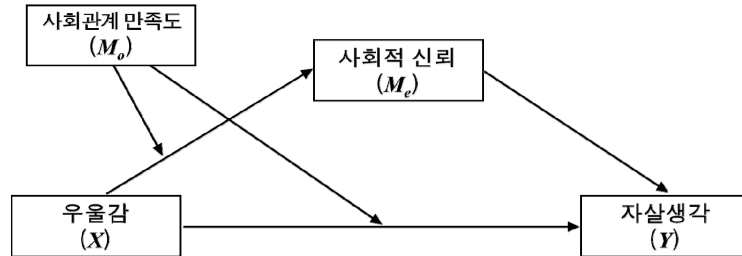
사회자본의 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자원이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망을 마련하여 신체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Putnam & Unum, 2007). 사회자본 중 하나인 신뢰는 크게 대인신뢰와 공적신뢰로 구분되며, 대인신뢰란 가까운 친지에 대한 신뢰 및 일반적 타인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Park, 2004, 2007). 이는 사회관계, 참여방식에 의해 형성되는데, 사회관계의 원천을 강조한 학자들은 신뢰를 포함한 사회자본이 자발적인 사회참여나 사적 관계망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Putnam, 1993). Putnam(1993)에 의하면, 신뢰와 네트워크의 결합으로 긍정적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으며, 사회자본의 소유나 소비를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 또는 자발적 참여와 활동이 필수적이며, 또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형성된 신뢰는 미시적 수준을 넘어 개인의 의식 속에 공유된 집합적이고 사회구조적 수준의 현상으로 확장된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신뢰는 집단을 결속시키는 접착제이자 전체 사회의 통합과 결속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한다(Park, 2007). 그동안 신뢰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왔다(Hamano et al., 2010; Helliwell & Wang, 2011; Lindstrom & Mohseni, 2009). 또 신뢰가 삶의 질에 있어 인지적 차원의 만족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밝혀졌으며(J. Lee, 2009), 이웃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이 높은 개인의 경우 우울증으로 발달할 위험이 낮다는 결과도 나타났으며(Fujiwara & Kawachi, 2008), 낮은 상호신뢰 수준을 가질수록 우울감이 지속될 수 있다는 종단연구 결과도 있었다(D. Kim et al., 2012). 이처럼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 만족도는 우울감의 영향력을 완화하고, 이러한 사회관계 만족도의 완화 효과는 높아진 사회적 신뢰의 매개한 결과일 것으로 예상된다.

4. 연구의 이론적 모형 및 가설

전술한 이론적 고찰에 의하면, 노년기 우울감은 자살생각과 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며, 특히 사회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이때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는 사회적 신뢰를 매개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신뢰의 효과가 자살생각에 대한 우울감의 영향을 완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었다. 즉, 사회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사회적 신뢰가 높아져 자살생각이 낮게 보고될 것이라는 가설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노년기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사회적 신뢰를 매개한 효과에 대한 검증이다. 본 연구의 가설



〈Figure 1〉 Conceptual model of the current study

을 <Figure 1>과 같은 모형으로 제시했을 때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 효과(가설 1), 우울감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에서의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 효과(가설 2), 그리고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매개 효과(가설 3)를 검증하는 것이다.

III. 방 법

1. 연구 자료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은 다양한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2006년부터 매년 1회 수행하는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주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자료는 2018년 한국복지패널 자료(13차)의 대상자 12,469명 중 60세 이상 노인 3,436명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모집단에서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은 각각 50%인데,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향후 표본추출과정에서 소실 및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참고로 조사대상자 관련 세부적인 특성은 결과 편에 소개되어 있다.

2. 변인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이었다. 이는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한 응답이 ‘아니오’일 경우 0 그리고 ‘예’일 경우 1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우울감이며, 이는 CES-D(The Center of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에 의해 측정된 것이었다. CES-D는 원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는 그 중 11개 문항만이 이용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형태는 Likert-type 4점 척도에 의한 것으로 지난 1주일 간 스스로 느낀 우울감 수준을 0점(극히 드물다)부터 3점(대부분 그랬다) 사이로 평가한 것이었다. 문항의 진술 내용이 긍정적인 경우는 역코딩했으며, 11개 문항의 총점(범위

는 0-33점)에 20/11을 곱한 값을 분석에 이용했다. 곧 CES-D의 총점은 범위가 0-60점이었고, 그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ES-D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968($n=3,43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조절변인은 주관적으로 평가한 ‘사회관계 만족도’이었다. 이는 친구 혹은 이웃 등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느끼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것이었는데, 문항의 응답형태는 Likert-type 5점 척도[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까지]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매개변인은 ‘사회적 신뢰’이었다.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는 대인신뢰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신뢰를 측정한다(Lim,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신뢰는 대인신뢰 문항을 활용해 측정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해 응답한 자료(믿을만하다, 잘 모르겠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를 활용했다. 응답 결과에 대한 코딩은 기존의 연구들에서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라는 응답은 1 그리고 ‘잘 모르겠다’ 또는 ‘매우 조심해야한다’라는 응답은 0으로 했다(J. Kim, 2015; Lim, 2014).

본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통제변인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기존의 연구(H. Kim, 2002; S. Lee & Lee, 2019)에서 종속변수인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성별(남성=0, 여성=1), 연령, 교육수준(무학/초졸=1, 중졸=2, 고졸=3, 전문대 재학 이상=4), 혼인상태(유배우자=0, 사별/별거/이혼/

미혼의 무배우자=1) 및 소득수준이 통제변인에 포함시켰으며, 그밖에 개인특성 중 건강과 관련한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매우 건강하다(1)부터 건강이 아주 안 좋다(5)까지] 및 만성질환(없음=0, 3개월 미만=1, 3-6개월=2, 6개월 이상=3)도 포함시켰다.

3. 분석방법

한국복지패널은 조사구를 층화하여 추출하는 층화이중추출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따라서 모집단의 결과를 정확히 추론하고 가구별 추출확률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 시 설계가중치 중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개인 표준 가중치를 적용하였다(D. Kim et al., 2012).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26과 PROCESS macro를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α)를 구하고,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가설 1과 2의 검증을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조절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때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여 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했다.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Aiken 등이 제안한 단순기울기 검증(test of simple slopes)을 실시하였다(Aiken, West, & Reno, 1991). 가설 3의 매개된 조절효과는 Baron 등이 제안한 단계적 접근법(causal steps approach)에 의거하여 자살생각과

사회적 신뢰에 대한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 효과를 각각 검증하고 그리고 자살생각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매개효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했다(Baron & Kenny, 1986; Muller, Judd, & Yzerbyt, 2005).

IV. 결 과

1. 조사대상자 특성 및 측정치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 중 본 연구에 포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and measures of the study variables (N=3,436)

Variable	M (SD) or n(%)	Variable	M (SD) or n(%)
Covariates		Covariates	
Sex		Period of chronic disease	
male	1,551 (45.1%)	N/A	591 (17.2%)
female	1,885 (54.9%)	≤ 3months	76 (2.2%)
Age	70.66 (8.53)	3-6months	58 (1.7%)
Education level		≥ 6months	2,711 (78.9%)
≤ elementary school	1,363 (39.7%)	Independent variable	
middle school	680 (19.8%)	Depressive symptoms	7.22 (8.76)
high school	940 (27.4%)	Moderator variable	
≥ college	453 (13.2%)	Social relations	
Marital status		very unsatisfied	13 (0.4%)
married	2,351 (68.4%)	unsatisfied	133 (3.9%)
single	1,085 (31.6%)	normal	786 (22.9%)
Household income		satisfied	2,171 (63.2%)
quartile 1	884 (25.7%)	very satisfied	89 (2.6%)
quartile 2	863 (25.1%)	Mediator variable	
quartile 3	860 (25.0%)	Social trust	
quartile 4	829 (24.1%)	mostly reliable	1,724 (50.2%)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careful	1,326 (38.6%)
very healthy	103 (3.0%)	not knowing	142 (4.1%)
healthy	1,335 (38.8%)	Dependent variable	
normal	1,002 (29.2%)	Suicidal Ideation	
unhealthy	895 (26.0%)	no	3,094 (90.0%)
very unhealthy	101 (3.0%)	yes	91 (2.7%)

Note. N/A: not applicable.

함된 조사대상자의 세부적인 특성 및 측정치는 <Table 1>에 소개되어 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45.1%($n=1,551$) 그리고 여성 54.9%($n=1,885$)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70.66 ($SD=8.53$)세이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9.7%($n=1,363$), 중학교 졸업이 19.8%($n=680$), 고등학교 졸업이 27.4%($n=940$),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 13.2%($n=453$)이었다. 결혼 상태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68.4%($n=2,351$) 그리고 사별이나 별거, 이혼, 미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비율이 31.6%($n=1,085$)이었다. 소득 수준의 경우 일사분위 비율이 25.7%($n=884$), 이사분위는 25.1%($n=863$), 삼사분위는 25.0%($n=860$), 그리고 사사분위는 24.1%($n=829$)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매우 건강하다는 반응이 3.0%($n=103$), 건강한 편이라는 반응은 38.8%($n=1,335$), 보통이라는 반응은 29.2%($n=1,002$),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는 반응은 26.0%($n=895$), 그리고 건강이 아주 안 좋다는 반응은 3.0%($n=101$)이었다. 만성질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17.2%($n=591$), 나머지는 질환이 있다는 응답이었었는데, 그 중 2.2%($n=76$)는 질환이 발생한 시기가 최근 3개월 이내였으며, 그 시기가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1.7%($n=58$), 6개월 이전에 발생했다는 응답이 78.9%($n=2,711$)이었다.

2. 노인의 우울감과 자살생각

연구대상자가 경험하는 우울감은 평균 7.22 점($SD=8.76$, $Range=0-58.18$)이었고, 사회관계 만족도의 경우 매우 불만족하는 응답 비율은

0.4%($n=13$),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은 3.9%($n=133$), 그저 그렇다는 비율은 22.9%($n=786$),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비율은 63.2%($n=2,171$), 그리고 매우 만족스럽다는 비율은 2.6%($n=89$)이었다. 사회적 신뢰의 경우 믿을만하다는 반응이 50.2%($n=1,724$)를 차지했으며,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반응이 38.6%($n=1,326$)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4.1%($n=142$)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2.7%($n=91$)이었다(<Table 1> 참고).

3.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검증

회귀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문제 여부를 확인했으며, 독립변인 우울감과 조절변인 사회관계 만족도의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분석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 자살생각은 독립변인 우울감과 상관이 정적인 반면($r=.269$, $p<.01$), 조절변인 사회관계 만족도와는 부적이었고($r=-.129$, $p<.01$) 또 사회적 신뢰와도 부적이었다($r=-.085$, $p<.01$). 한편 사회적 관계와 우울감 사이의 상관은 부정적($r=.342$, $p<.01$), 사회적 신뢰와 우울감 사이의 상관도 부정적($r=-.118$, $p<.01$),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신뢰의 상관은 정적($r=.158$, $p<.01$)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들 사이의 상관은 모두 다중공선성이 의심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1)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
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검증
노년기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
과를 <Table 2>에 요약했다. 모델 1에서는 개

<Table 2> Result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for suicidal ideation

		Suicidal Ideation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Covariate Variable					
Sex (male)	Odds Ratio	.639	.655	.692	.666
	95% CI	.402-1.016	.403-1.063	.423-1.133	.406-1.092
Age	Odds Ratio	1.071***	1.074***	1.074***	1.071***
	95% CI	1.039-1.104	1.041-1.108	1.041-1.108	1.038-1.105
Education (≤ elementary)	Odds Ratio	1.223	1.232	1.222	1.234
	95% CI	.971-1.540	.963-1.576	.955-1.563	.966-1.576
Marital status (married)	Odds Ratio	2.479***	1.939	1.943**	1.836*
	95% CI	1.527-4.024	1.167-3.220	1.169-3.229	1.106-3.048
Household income (quartile 1)	Odds Ratio	.660**	.753*	.772	.773
	95% CI	.514-.846	.578-.981	.592-1.007	.593-1.009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healthy)	Odds Ratio	2.662***	1.626**	1.584**	1.541**
	95% CI	2.016-3.514	1.201-2.202	1.167-2.152	1.134-2.093
Chronic disease (N/A)	Odds Ratio	.821	.836	.834	.839
	95% CI	.669-1.007	.671-1.042	.669-1.040	.672-1.048
Independent variable					
Depressive symptoms	Odds Ratio		1.099***	1.095***	1.111***
	95% CI		1.077-1.122	1.072-1.119	1.085-1.137
Moderator variable					
Social relations	Odds Ratio			.813	.512**
	95% CI			.597-1.107	.332-.789
Depressive symptoms x Social relations	Odds Ratio				1.033**
	95% CI				1.009-1.058
Nagelkerke R^2		.151	.262	.264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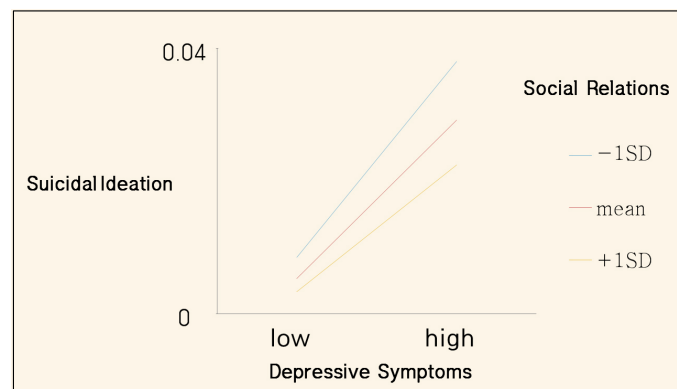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인적 특성들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모델에 투입한 결과, 대상자의 연령($OR=1.071$, $p<.001$), 결혼상태($OR=2.479$, $p<.001$), 소득수준($OR=.660$, $p<.01$), 주관적 건강상태($OR=2.662$, $p<.001$)가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독립변인 우울감이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R=1.099$, $p<.001$). 그 대신 모델 1에서 의미가 있었던 교육수준이나 결혼상태의 효과는 사라졌다. 조절변인 사회관계 만족도가 투입된 모델 3의 경우 이는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모델 1 및 2에서 유의미했던 가계수입의 효과가 사라진 반면, 결혼상태의 효과가 다시 나타났다($OR=1.943$, $p<.01$).

한편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상호작용 항을 투입시킨 모델 4에서는 우울감이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OR=1.111$, $p<.001$), 조절변인 사회관계 만족도 역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남($OR=.512$, $p<.01$)과 동시에 우울감과 사

회관계 만족도의 상호작용 항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OR=1.033$, $p<.01$). 이는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네 가지 단계 모델에서 성별이나 교육수준, 만성질환 여부의 공변인은 별다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종모델의 Nagelkerke R^2 는 약 27.5%의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자살생각의 예측 정확도(classification accuracy)는 97.1%로 높게 나타났다. 즉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관계 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살생각에 있어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Aiken et al. (1991)이 제안한 단순기울기(simple slope)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조절변인 사회관계 만족도의 상호작용 효과의 패턴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다(<Figure 2> 참고). <Figure 2>에 제



Note. Suicidal Ideation was a residual that w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measured value and the predicted value as a probability value.

<Figure 2> Verification of simple slope test according to the condition value of social relations

〈Table 3〉 Verification of simple slope test according to the condition value of social relations

Moderator variable	<i>b</i>	<i>SD</i>	<i>t</i> (<i>p</i>)	95% <i>CI</i>	
				<i>Lower limit</i>	<i>Upper limit</i>
Social Relations	-1 SD	.0861	.0078	11.113***	.0709 .1013
	Mean	.0979	.0086	11.384***	.0810 .1148
	+1 SD	.1097	.0118	9.267***	.0865 .1329

*** $p < .001$

시된 바처럼 우울감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을 보고할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이때 사회관계 만족도가 낮은 노인보다는 높은 노인이 자살생각을 보고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사회관계 만족도가 낮은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에 있어서 사회관계 만족도의 평균값과 $\pm 1SD$ (표준편차)의 값을 가질 때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기울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참고). 그 결과,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단순기울기는 사회관계 만족도가 높은 집단(+1SD)의 경우 .1097이었고, 사회관계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의 경우 .0979로 감소했으며, 또 사회관계 만족도가 낮은 집단(-1SD)의 경우 .0861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 만족도의 수준에 따른 단순기울기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관계 만족도가 낮을 때보다 평균이거나 높을 때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2) 우울감과 사회적 신뢰의 관계에서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 검증

연구대상자의 노년기 우울감과 사회적 신뢰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했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모델에 투입한 모델 1에서는 대상자의 연령($OR=.974$, $p<.001$) 및 소득수준($OR=1.179$, $p<.001$)이 사회적 신뢰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독립변인 우울감은 사회적 신뢰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R=.973$, $p<.001$), 우울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를 부정적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모델 3에서도 우울감은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OR=.980$, $p<.001$). 또 조절변인 사회관계 만족도는 사회적 신뢰와 유의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OR=1.576$, $p<.001$), 사회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높았다.

〈Table 4〉 Result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sults for social trust

		Social Trust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Covariate Variable					
Sex (male)	Odds Ratio	.985	.997	.954	.961
	95% CI	.845-1.149	.854-1.164	.816-1.116	.822-1.124
Age	Odds Ratio	.974***	.972***	.973***	.973***
	95% CI	.964-.984	.962-.982	.963-.983	.963-.983
Education (≤ elementary)	Odds Ratio	1.037	1.039	1.035	1.031
	95% CI	.960-1.119	.962-1.122	.957-1.118	.954-1.114
Marital status (married)	Odds Ratio	.882	.940	.954	.959
	95% CI	.742-1.047	.790-1.119	.800-1.137	.804-1.144
Household income (quartile 1)	Odds Ratio	1.179***	1.147**	1.119**	1.117**
	95% CI	1.091-1.275	1.060-1.241	1.034-1.212	1.031-1.209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healthy)	Odds Ratio	.934	1.014	1.060	1.061
	95% CI	.854-1.021	.923-1.113	.964-1.167	.965-1.168
Chronic disease (N/A)	Odds Ratio	1.016	1.014	1.013	1.015
	95% CI	.953-1.083	.951-1.081	.950-1.081	.951-1.083
Independent variable					
Depressive symptoms	Odds Ratio		.973***	.980***	.977***
	95% CI		.964-.982	.971-.989	.967-.987
Mediator variable					
Social relations	Odds Ratio			1.576***	1.642***
	95% CI			1.387-1.791	1.438-1.876
Depressive symptoms x Social relations	Odds Ratio				.987*
	95% CI				.976-.998
Nagelkerke R^2		.019	.034	.054	.05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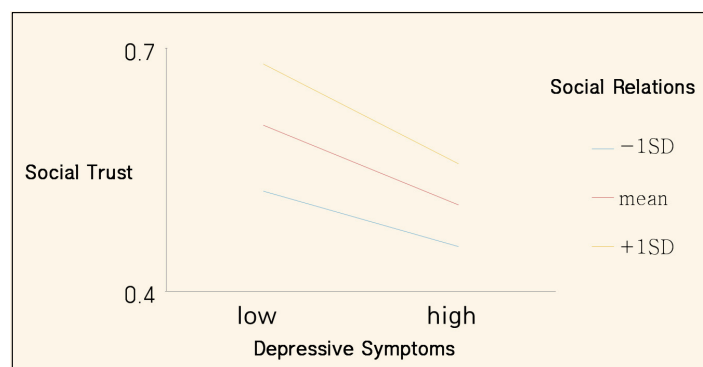
한편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시킨 모델 4에서는 우울감이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OR=.977$, $p<.001$), 조절변인 사회관계 만족도 역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남($OR=1.642$, $p<.001$)과 동시에 우울감과 사회관계 만족도의 상호작용 항도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OR=.987, p<.05$). 이는 우울감과 사회적 신뢰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네 가지 단계 모델에서 성별이나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여부의 공변인은 별다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종모델의 Nagelkerke R^2 은 약 5.7%의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사회적 신뢰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60.1%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즉 우울감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관계 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단순기울기(simple slope)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사회관계 만족도의 상호작용 패턴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다(<Figure 3> 참고). <Figure 3>에 제시된 바처럼 우울감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신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감소하는데, 이때 사회관계 만족도가 낮은 노인보다는 높은 노인이 사회적 신뢰를 긍정적으로 보고할 가

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관계를 만족하는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사회관계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 하는 노인일수록 우울감의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에 있어서 사회관계 만족도의 평균값과 $\pm 1SD$ (표준편차)의 값을 가질 때 우울감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기울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참고). 그 결과, 우울감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단순기울기는 사회관계 만족도가 높은 집단(+1SD)의 경우 -.0296이었고, 사회관계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의 경우 -.0225로 감소했으며, 또 사회관계 만족도가 낮은 집단(-1SD)의 경우 .015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관계 만족도의 수준에 따른 단순기울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관계 만족도가 낮을 때보다 평균적일 때, 그리고 높을 때 우울감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Note. Social trust was a residual that w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measured value and the predicted value as a probability value.

<Figure 3> Verification of simple slope test according to the condition value of social relations

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노년기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통한 사회관계 만족도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참고). 모델 1에서는 독립변인 우울감($OR=1.111, p<.001$)과 조절변인 사회관계 만족도($OR=.512, p<.01$) 모두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과 사회관계 만족도의 상호작용($OR=1.033, p<.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 만족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패턴을 살펴본 결과, 사회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의 경우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독립변인 우울감($OR=.977, p<.001$)과 조절변인 사회관계 만족도($OR=1.642, p<.001$)는 사회적 신뢰와 유의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감과 사회관계 만족도의 상호작용항($OR=.987, p<.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울감과 사회적 신뢰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 만족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기울기검정과 그래프를 통해 상호작용 패턴을 살펴본 결과, 사회관계 만족도가 낮을 때보다 평균적일 때, 그리고 높을 때 우울감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델 3에서도 독립변인 우울감($OR=1.108, p<.001$)과 조절변인 사회관계 만족도($OR=.550, p<.01$)가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과 사회관계 만족도의 상호작용항($OR=1.032,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 만족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 사회적 신뢰($OR=.530, p<.05$)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신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노인일수록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델의 Nagelkerke R^2 은 약 28.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자살생각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97.2%로 높게 나타났다. 앞선 연구모형에 따라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에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최종적으로 부분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이 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Table 5> Verification of simple slope test according to the condition value of social relations

Moderator Variable		<i>b</i>	<i>SD</i>	<i>t</i> (<i>p</i>)	95% <i>CI</i>	
					<i>Lower limit</i>	<i>Upper limit</i>
Social Relations	-1 SD	-.0154	.0037	-4.162***	-.0227	-.0082
	mean	-.0225	.0035	-6.530***	-.0293	-.0158
	+1 SD	-.0296	.0047	-6.336***	-.0388	-.0205

* $p<.05$, ** $p<.01$, *** $p<.001$

〈Table 6〉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 through social trust

		Model 1 (Suicidal Ideation)	Model 2 (Social Trust)	Model 3 (Suicidal Ideation)
Covariate Variable				
Sex (male)	Odds Ratio	.666	.961	.662
	95% CI	.406-1.092	.822-1.124	.404-1.085
Age	Odds Ratio	1.071***	.973***	1.066***
	95% CI	1.038-1.105	.963-.983	1.033-1.099
Education (≤ elementary)	Odds Ratio	1.234	1.031	1.227
	95% CI	.966-1.576	.954-1.114	.961-1.567
Marital status (married)	Odds Ratio	1.836*	.959	1.837*
	95% CI	1.106-3.048	.804-1.144	1.105-3.056
Household income (quartile 1)	Odds Ratio	.773	1.117**	.787
	95% CI	.593-1.009	1.031-1.209	.601-1.029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healthy)	Odds Ratio	1.541**	1.061	1.572**
	95% CI	1.134-2.093	.965-1.168	1.154-2.143
Chronic disease (N/A)	Odds Ratio	.839	1.015	.840
	95% CI	.672-1.048	.951-1.083	.672-1.050
Independent variable				
Depressive symptoms	Odds Ratio	1.111***	.977***	1.108***
	95% CI	1.085-1.137	.967-.987	1.082-1.134
Moderator variable				
Social relations	Odds Ratio	.512**	1.642***	.550**
	95% CI	.332-.789	1.438-1.876	.353-.856
Depressive symptoms x Social relations	Odds Ratio	1.033**	.987*	1.032*
	95% CI	1.009-1.058	.976-.998	1.007-1.057
Mediator variable				
Social trust	Odds Ratio			.530*
				.324-.869
Nagelkerke R^2 95% CI		.275	.057	.283

* $p < .05$, ** $p < .01$, *** $p < .001$

V. 논 의

본 연구는 노년기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통한 사회관계 만족도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것이었다. 연구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13차 한국복지패널 자료 대상자 중 60세 이상에 대한 것이었으며, 검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우울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는 사회관계 만족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사회관계 만족도가 낮은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감이 낮은 노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과 사회적 신뢰의 관계는 사회관계 만족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사회관계에 대해 불만족이 심한 노인일수록 우울감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앞의 두 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사회적 신뢰를 매개한 효과인지를 검증했다는 점이다. 검증 결과,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의 경우 사회적 신뢰가 증가하여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노년기 우울감과 자살생

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통한 사회관계 만족도의 부분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이 도출되었다.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사회적 신뢰의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살은 죽음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로 자살자에게는 고통이나 질병에 대한 대안적 선택이자 희망 없는 상태에 대한 합리적 대안으로 설명되기도 한다(Lange, 2003). 다시 말해, 자살자는 자신이 경험해온 현재까지의 삶을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더 이상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할 때 삶의 지속에 대한 대안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에 겪고 있는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사회적 신뢰를 매개한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감이 심한 상태를 겪고 있을 때 사회참여를 통해 얻는 심리적 효과와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수준을 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도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인신뢰는 국가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공적신뢰를 축적할 때 필수적인데(Park, 2007),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신뢰는 대인신뢰를 활용하여 측정했다. 그 결과 사회적 신뢰는 개인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적제도 등 물적 자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해주었다. 즉, 사회 참여를 통해 축적된 타인에 대한 믿음인 대인신뢰가 국가 및 지역사회 등 공적신뢰로 확장된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의 상황을 미래에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여 극단적인 선택

인 자살에 대한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자살의 문제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라는 측면에서 개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지만, 자살은 사회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개인 문제임과 동시에 자살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현상이다(S. Kim, 2004). 특히 노인 자살의 경우 건강상태, 경제상태, 대인관계 축소, 연령주의로 인한 차별 등 자살의 원인이 복합적이며(G. Kim & Lee, 2020), 이러한 사회통합변인과 교환자원변인은 우울감을 매개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H. Kim, 2002). 이처럼 노인자살의 문제는 노인 스스로 극복하기가 어렵고 사회에 의존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자본 확충을 통해 노인자살 예방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뢰의 경우 사회적 자본인 동시에 다른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Park, 2000).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건강에 대한 신뢰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M. Kim, 2010).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신뢰가 확충될 경우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노인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닌 주변인 역할만을 담당하거나 의존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H. Kim, 2006). 이를 바탕으로 노인이 지역 사회 및 사회적 문제해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구성원임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Lord, 2019).

근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및 공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노년기의 다양한 활동은 가족이나 친지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며(K. Kim & Kim, 2014), 이를 통해 노인은 사회 자원을 축적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적 노화의 관점에서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역사회 참여 및 적극적인 여가활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Foster & Walker, 2015; G. Lee,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노인들이 사회참여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취미 및 여가활동으로 종교참여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활동 이외의 사회참여를 하는 기회는 평균 1.5회에 불과했으며, 조사대상 노인들의 약 21%는 사회참여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KIHASA, 2018). 이는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지역사회 문화여가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Kang, 2018). 노년기 사회참여를 위한 토대 구축은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사회참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사회자본을 굳건하게 형성시켜주며, 이는 노년기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우울감이나 자살 시도를 감소시켜주는, 즉 노년기 정신건강을 증진시

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신뢰 및 사회 관계에서 만족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몇 가지 제한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자가 사회자본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측면을 직접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대인신뢰를 측정한 단일 문항의 결과를 사회적 신뢰로 활용했으며 또 그 측정 결과도 이분형 변인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신뢰의 수준이 세밀하게 측정·반영하지 못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절 및 매개변인도 이분형 변인이라서 부트스트랩 기법(bootstrap method)을 적용할 수 없어 신뢰의 효과가 검증되지 못했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 전술한 바처럼 대인신뢰가 공적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한 연구가 시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인 우울감과 종속변인 자살생각의 측정을 서로 다른 기준에 의했다는 점인데, 우울감은 지난 일주일 그리고 자살생각은 지난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했었다. 이러한 준거기준의 차이는 우울감과 자살생각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의미하며, 또 그 두 변인의 관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이 혼입되었을 가능성도 의미한다. 이러한 제한점도 연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존의 패널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생긴 고려사항이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 자료는 횡단적 연구 자료였기에 연구에 이용된 변인들 사이의 인과적 추론을 이끌어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자본과 우울감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에 의한 자료 분석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사항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년기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사회적 신뢰의 매개효과를 기반으로 함을 증명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 의의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자살을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접근했다는 의의를 들 수 있다. 이는 노인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자본을 확충시킬 수 있는 환경 개선이나 토대 마련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논의했던 우울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 수준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갖는 이유에 대하여 사회적 신뢰의 역할을 바탕으로 검증했다는 의의도 지닌다. 이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참여 효과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자살 문제에 있어 정책 개발의 중요성과 더불어 지역 사회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긍정적 사회자본 확충이 개인의 삶과 사회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References

- Aiken, L., West, S., & West, S.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Bae, J. (2009). The effect of ADL and IADL on the depression of the older-elderly-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elder abus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 353-368.
- Bae, J., Kim, W., & Yoon, K. (2005). Depression, suicidal thoughts and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5(3), 59-73.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ck, A.,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Brooks, S., Burruss, S., & Mukherjee, K. (2019). Suicide in the elderly: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prevention. *Clinics in Geriatric Medicine*, 35, 133-145.
- Carstensen, L., Isaacowitz, D., & Charles, S. (1999). Taking time seriously: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4(3), 165-181.
- Chang, Q., Chan, C. H., & Yip, P. S. (2017). A meta-analytic review on social relationship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older adults. *Social Science & Medicine*, 191, 65-76.
- Choi, Y., & Kim, S. (2008). Suicide ideation and related factors according to depression in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2), 345-355.
- Compton, M., Thompson, N., & Kaslow, N. (2005). Social environment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e attempt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s: The protective role of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0(3), 175-185.
- Conwell, Y., Duberstein, P., & Caine, E. (2002). Risk factors for suicide in later life. *Biological psychiatry*, 52(3), 193-204.
- Coren, S. & Hewitt, P. (1999). Sex differences in elderly suicide rates: Some predictive factors. *Aging & Mental Health*, 3(2), 112-118.
- Durkheim, É. (1897). *Le suicide: Étude de sociologie*. Paris: Alcan.
- Eom, T. (2007). Elderly suicide and its related factors: Focused o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mastery in the effects of hopelessness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9(2), 355-379.

- Foster, L., & Walker, A. (2015). Active and successful aging: A European policy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55, 83-90.
- Fujiwara, T. & Kawachi, I. (2008). A prospective study of individual-level social capital and major d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62(7), 627-633.
- Gweon, H. (2009). Effects of problem drinking of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depression and self-esteem: A latent means analysis application between poor and non-poor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4), 1521-1538.
- Hamano, T., Fujisawa, Y., Ishida, Y., Subramanian, S. V., Kawachi, I., & Shiwa, K. (2010). Social capital and mental health in Japan: A multilevel analysis. *PloS One*, 5(10), e13214 [doi: 10.1371/journal.pone.0013214].
- Harithasan, D., Mukari, S., Ishak, W., Shahar, S., & Yeong, W. (2020). The impact of sensory impairment on cognitive performance, quality of life, depression, and loneliness in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35, 358-364.
- Helliwell, J., & Wang, S. (2011). Trust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1, 42-78.
- Hendricks, J., & Cutler, S. (2004). Volunteerism and socioemotional selectivity in later lif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9(5), 251-257.
- Jang, Y., & Chiriboga, D. (2011). Social ac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American older adults: The conditioning role of acculturation.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3(5), 767-781.
- Jeong, H., & Yim, H. (2019). Suicidal screening and management for the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8(2), 129-137.
- Kang, E. (2018).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among older adult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0, 44-55.
- KIHAS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2017 National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Older Koreans*. Sejong, Korea: KIHASA.
- Kim, D., & Kim, S., & Shin, S.. (2012). The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on the depression of the spouse-less elderl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2, 289-303.
- Kim, G., & Lee, M. (2020). Age discrimin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older adults.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8(7), 748-754.
- Kim, H. (2002). A study on epistemology of Korean elder's suicidal though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2, 159-172.

- Kim, H. (2006). The current trend of suicide and its prevention in life stages: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elderly and youth suicid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4(1), 271-292.
- Kim, H. (2017). The regional current status and factors of the pre-elderly/elderly suicide rates and policy task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8), 291-298.
- Kim, J. (2015).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trajectories in later lif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3), 181-201.
- Kim, K., & Sok, S. (2009).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2), 197-206.
- Kim, K., & Kim, S. (2014). Multi-dimensional measuring and multi-level analysis of active ageing in 16 OECD countries. *Social Welfare Policy*, 41, 1-32.
- Kim, M. (2005). The theory of a conceptual definition an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the methodological issues of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2(1), 99-121.
- Kim, M. (2010). The effect of psycho-social factors on the suicidal ideation of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47, 113-136.
- Kim, M., & Shin, H. (2013). Influence of depression of the elderly on suicidal idea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reparation for aging. *Seoul Studies*, 14(4), 185-201.
- Kim, S. (2004). Trends in elderly suicide rates and social factors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19, 181-205.
- Kim, S. (2013). Benefits of volunteering to physical health,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meaning in life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3(1), 53-66.
- Kim, S., Jang, Y. E., & Seo, H. (2011). The influence of marital satisfaction on the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1(2), 305-319.
- Kim, S., Kim, S., Kim, J., Suh, T., Shin, I., Kim, S., et al. (2008). A survey on attitudes toward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4, 43-48.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18*.
- Lange, H. (2003). Elder suicide: A selective guide to resources. *Reference Services Review*, 31(2), 175-184.
- Lebret, S., Perret-Vaille, E., Mulliez, A., Gerbaud, L., & Jalenques, I. (2006). Elderly suicide attempters: Characteristics and outcom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1(11), 1052-1059.
- Lee, G. (2017). Policy considerations for

- activating the volunteering of older Korean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6(1), 37-45.
- Lee, H. (200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social capital traits. *Social Science Research*, 25(3), 25-42.
- Lee, H., & Jo, K. (2006). A path model for death anxiety to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4), 717-731.
- Lee, J. (2009). Satisfaction with life and social capital: Centered on the effect of civic participation, trust and social resources.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2, 5-40.
- Lee, J., & Han, G. (2012). Korean pre-elders' friendship experience and happines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2, 170-205.
- Lee, M. (2013).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social networks and depressive symptoms: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4), 171-200.
- Lee, S., & Atteraya, M. (2019). Depression, poverty, and abuse experience in suicide ideation among older Korean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88, 46-59.
- Lee, S., & Lee, E. (2019).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people based on complete enumeration of a community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8(4), 393-403.
- Lee, S., & Lee S. (2009). A study of elderly suicide preventive measur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56, 32-42.
- Lim, W. (2014). The effec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n the social trust formation. *Social Welfare Policy*, 41 (2), 109-134.
- Lindstrom, M., & Mohseni, M. (2009). Social capital, political trust and self-reported psychological health: A population-based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68(3), 436-443.
- Lord, K. M. (2019, January 31). Six ways to repair declining social trust.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https://ssir.org/articles/entry/six_ways_to_repair_declining_social_trust#].
- Moon, S., Chung, J., & Sohn, E. (2008).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social participation between daily hassles and depression for the elderly with stroke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4(4), 223-248.
- Muller, D., Judd, C., & Yzerbyt, V.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852-863.
- Newton, K.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201-214.

- Oh, I., Oh, Y., & Kim, M. (2009).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the depression of elderly females in Korea: Analysis of the intermediating effect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1), 113-136.
- Park, B. (2004). Confidence in government in Korea: Modern and postmodern factors. *Civil Society and NGO*, 2(2), 87-118.
- Park, B. (2007).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istrust in the formation of trust. *Journal of Korean Sociology*, 41(3), 65-105.
- Park, C., & Bae, Y. (2016).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depression: Focused on type, size and density of networks.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39(4), 61-77.
- Preacher, K., Rucker, D., & Hayes, A.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 13, 35-42.
- Putnam, R., & Unum, E. (2007).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The 2006 Johan Skytte Prize Lectur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0(2), 137-166.
- Shim Y., & Cho, M. (2006). A qualitative study on the social adaptation of Bereaved woman who play her part in socie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3, 109-127.
- Shin, W. (2011).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volunteer participa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4, 135-163.
- Steffens, D., & Potter, G.(2008). Geriatric depression and cognitive impairment. *Psychological Medicine*, 38(2), 163-175.
- Thoits, P. (2011). Mechanisms linking social ties and support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2(2), 145-161.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No. WHO/NMH/NPH/02.8).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Yang, S., & Lim C. (2006). A relative effects of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of the rural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2, 377-396.
- Yoon, S., & Han, G. (2004). Productive activ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l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4(2), 57-77.

원고접수일: 2020. 09. 29.

수정원고접수일: 2020. 11. 08.

원고게재승인일: 2020. 11. 23.